

2023년 '흡연과 건강' 관련 국민의식

■ 2023년 '흡연' 관련 국민의식

- _ 흡연 '전혀 않는다' 70%, 2년 전과 비슷
- _ 흡연 방법 : '일반 궐련담배' 비중 줄고, '전자담배' 증가
- _ 흡연 이유 : '스트레스 해소' 가장 많아
- _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쁘다' 87%
- _ 일반 궐련담배와 전자담배, 비슷하게 건강에 나쁘다 생각
- _ 금연 정책 : '금연구역 지정', '담배가격 인상'만 긍정 평가
- _ 전자담배 주도 2030세대, 금연 정책 실효성 부정적
- _ 일반 궐련담배 고수 4050세대, 50대만 금연 정책 긍정적
- _ 60대이상, 금연 정책에 매우 긍정적

■ 2023년 '건강' 관련 국민의식

- _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건강하다' 지속 우위
- _ 기대 수명, 80대가 가장 높은 흐름 지속
- _ 건강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
- _ 남자 20대와 여자 30대, 상대적으로 노력 많이 해
- _ 남녀 60대, 가장 노력 많이 해
- _ 소득 많을수록 노력 '많이 한다'

■ 건강과 '우울' 경험

- _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2~10만원 가장 많아
- _ 건강 관련, 우울한 경험 '있다' 41%
- _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5월 5일(금) ~ 5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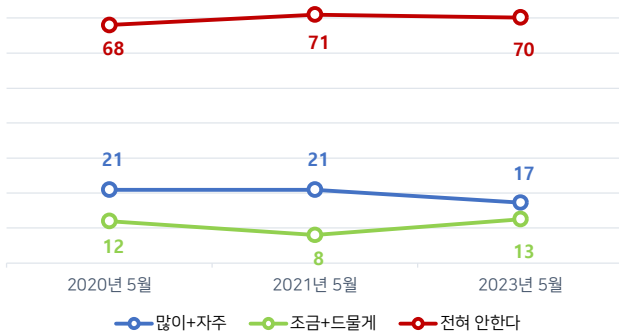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23년 '흡연' 관련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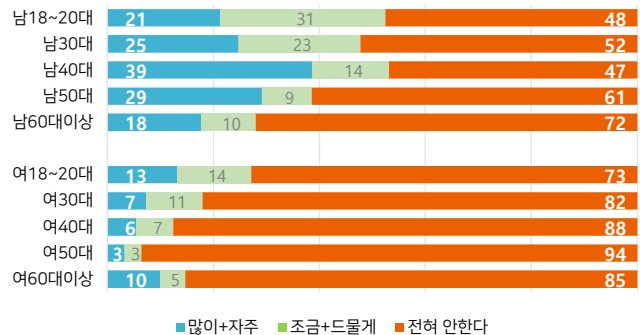
흡연 '전혀 않는다' 70%, 2년 전과 비슷

- 평소 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 국민 중 70%가 '전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년 전 조사(71%)와 비슷한 수치임
 - '많이, 항상 한다'는 응답과 '적당히, 자주 한다'는 응답을 합친 [상시 흡연자]는 17%로 2년 전보다 4%p 하락함
 - '조금, 가끔 한다'와 '아주 조금, 드물게 한다'는 응답자를 합한 [간헐적 흡연자]는 13%로 전년 대비 5%p 상승함
- 흡연 여부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남
 - [상시 흡연자(많이+자주)] 비중을 보면, 남성은 27%인데 비해 여성은 8%에 그침
- [상시 흡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4050세대 △자영업 등임
- 비흡연자 비중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4050세대 △경기.인천, TK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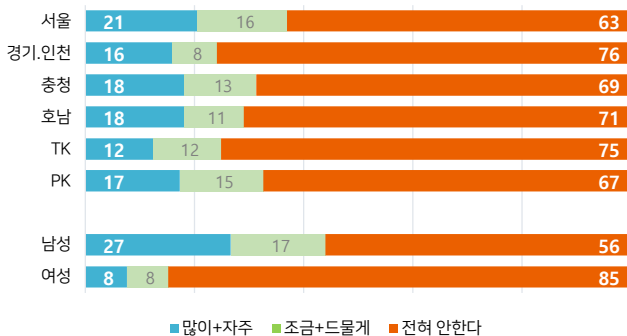
평소 흡연 정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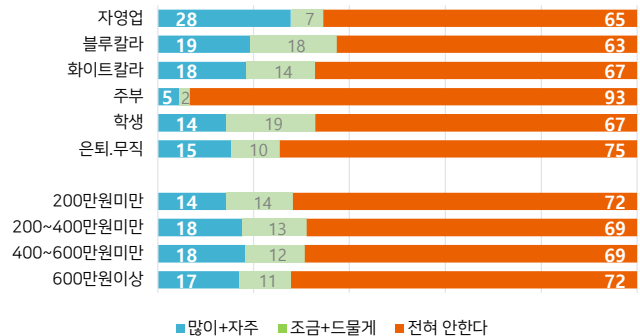
평소 흡연 정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평소 흡연 정도 : 지역별,성별 (2023.05.07조사,단위:%)



평소 흡연 정도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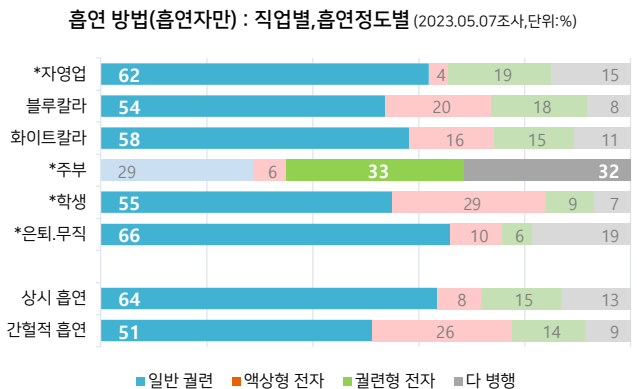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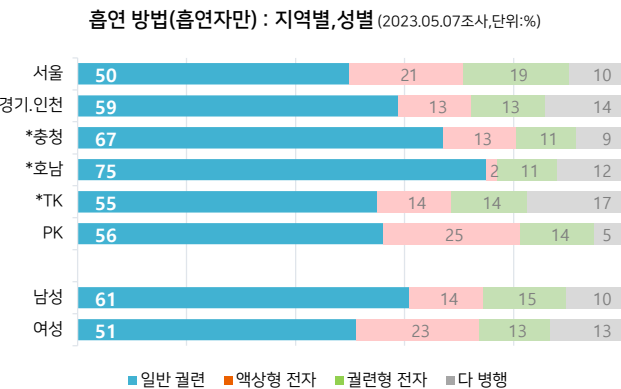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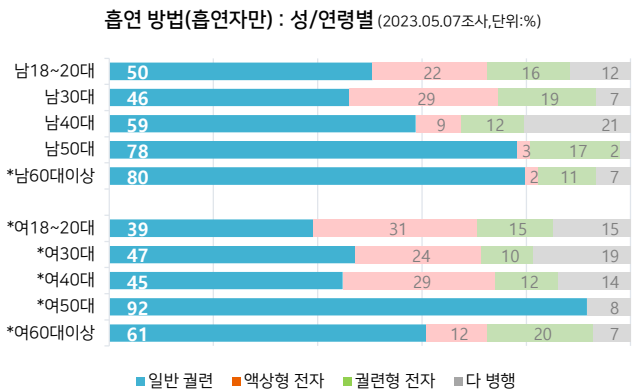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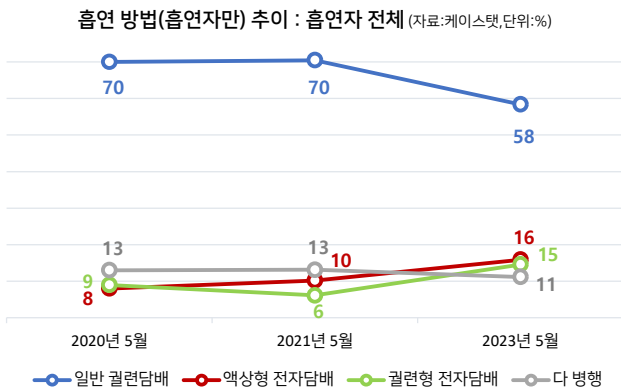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의 비흡연율이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시 흡연자]는 줄고 [간헐적 흡연자]는 증가함 : [상시 흡연자] 비중이 많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와 △자영업 계층임
- ☑ 참고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평균(16.0%)과 유사한 15.9%로 34개국 중 19위임 (1위는 튀르키예 28.0% / 2020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

□ 흡연 방법 : '일반 궤련담배' 비중 줄고, '(액상·궤련형)전자담배' 증가

- 흡연자들만을 대상으로('많이+자주'와 '조금+드물게'를 합친 흡연자 전체) 흡연 방법을 질문한 결과 58%가 '일반 궤련담배'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2년 전 70%에서 12%p 하락한 수치임
- '일반 궤련담배' 하락분을 가장 많이 흡수한 담배는 '궤련형 전자담배'로 2년 전 대비 9%p 상승하며 15%를 기록함
- '액상형 전자담배'도 6%p 상승한 1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비중이 상승함
- '일반 궤련담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호남 △상시 흡연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표 되어 있는 계층은 표본수 40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상대적으로 전자담배(액상형+궤련형)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40세대 △서울 △간헐적 흡연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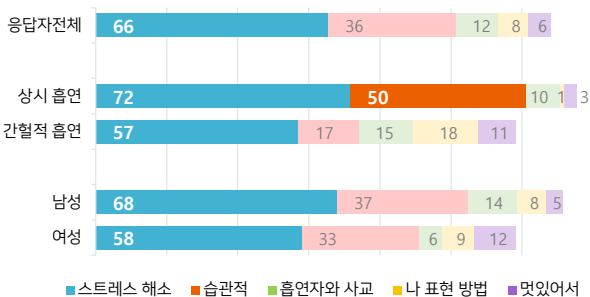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일반 궤련담배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전자담배(액상형+궤련형)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 전자담배 이용을 주도하는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40세대 등 주로 젊은 층임
 - : 특히 이들 젊은층 만큼 놓고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 한편, [상시 흡연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남자 4050세대는 일반 궤련담배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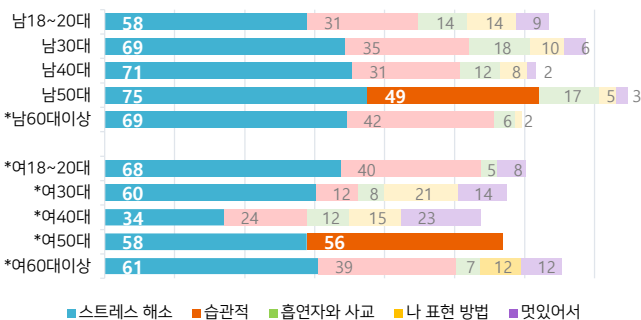
□ 흡연 이유 : ‘스트레스 해소’ 가장 많아

- 흡연자들만을 대상으로(‘많이+자주’와 ‘조금+드물게’를 합친 흡연자 전체) 흡연 이유를 질문할 결과 ‘스트레스 해소’가 6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습관적’ 36%로 나타남 (복수응답 결과)
 - 그 다음은 ‘흡연자와 사고’ 12%, ‘나를 표현하는 방법’ 8%, ‘멋있어 보여서’ 6% 순으로 응답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상시 흡연자 △남자 4050세대 △호남, TK, PK △자영업, 화이트칼라, 은퇴.무직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표 되어 있는 계층은 표본수 40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습관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계층은 △상시 흡연자 △남자 50대 △여자 50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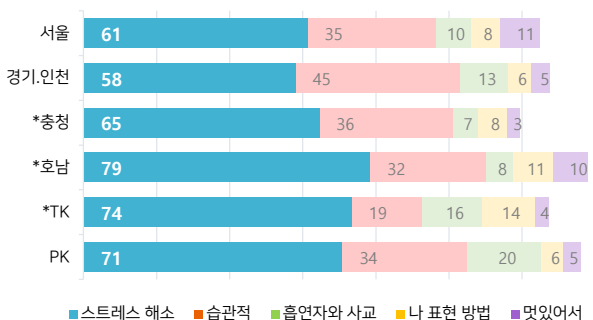
흡연 이유(흡연자만, 복수응답) : 응답자전체, 흡연정도별, 성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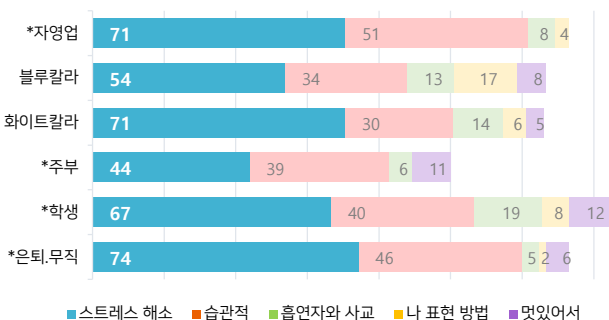
흡연 이유(흡연자만, 복수응답) : 성/연령별 (2023.05.07조사,단위:%)



흡연 이유(흡연자만, 복수응답) : 지역별 (2023.05.07조사,단위:%)



흡연 이유(흡연자만, 복수응답) : 직업별 (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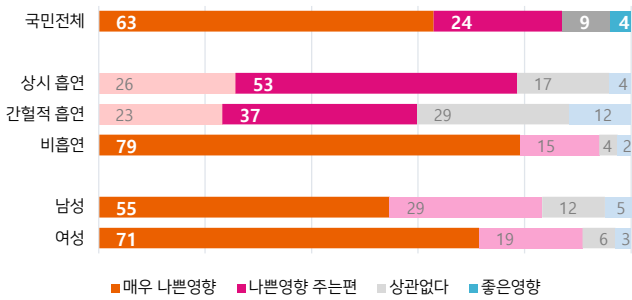
Kstat Point

- ☑ 흡연자들에게 있어 ‘담배’란 ‘스트레스 해소’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상시 흡연자]는 물론 [간헐적 흡연자]에게도 같은 흐름임
 - :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흡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 흡연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상시 흡연자]와 남자 50대, 여자 50대에 그침
 - : 즉,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하는 계층은 이들에 한정되며, 특히 [상시 흡연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남자 40대의 ‘습관적’ 응답은 31%로 낮은 수준임
- ☑ 한편, ‘흡연자와 사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 ‘멋있어 보여서’ 등의 비중은 모든 계층에서 낮게 나타남
- ☑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함에 있어, ‘중독성’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물리적, 심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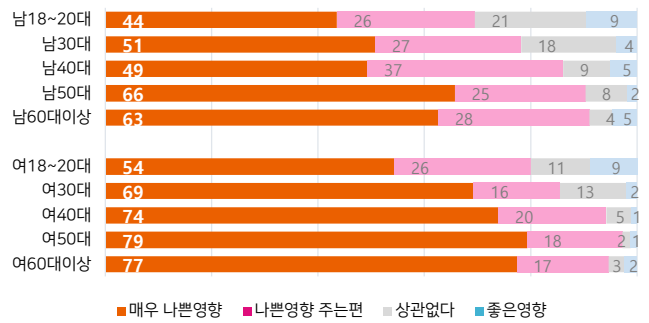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쁘다’ 87%

- 우리 국민 대다수는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 국민 중 63%가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나쁜 영향을 주는 편이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남
 - ‘별로 상관 없다’는 9%이고,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4%에 그침
 - “선생님께서서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비흡연자 △여성 △여자 4060세대 △호남 △주부 등임
- ‘나쁜 영향을 주는 편이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상시 흡연자 △간헐적 흡연자 등임
- 한편,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20대 △블루칼라,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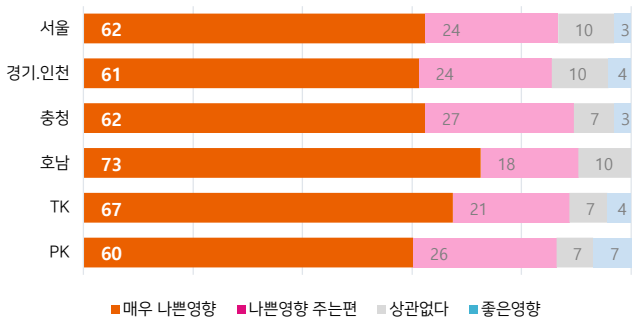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국민전체, 흡연정도별, 성별
(자료:케이스탯, 2023.05.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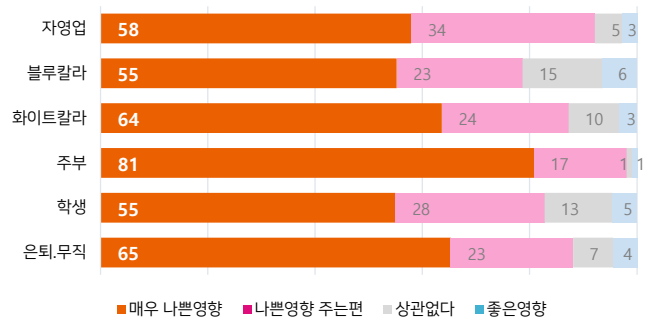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성/연령별 (2023.05.07조사, 단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지역별 (2023.05.07조사, 단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직업별 (2023.05.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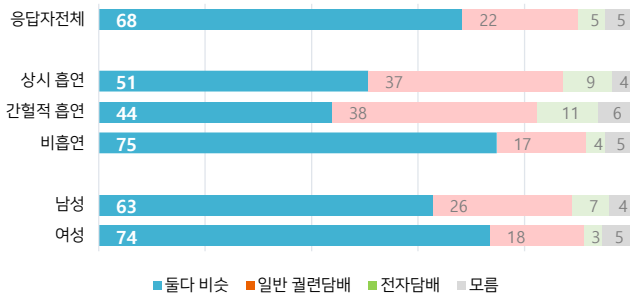
Kstat Point

-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각이 다름
 - : ‘매우 나쁜영향’ 응답이 [비흡연자]는 79%이지만, [상시 흡연자]는 26%이고, [간헐적 흡연자]도 23%에 그침
 - : 성/연령별로도 응답 비중이 다른데, 특히 남자 2040세대와 여자 20대의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 흡연 예방에 있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 특히 남녀 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에 주목할 때, 이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임
 - : 한편, 흡연자의 금연 유도에는 ‘건강’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해소’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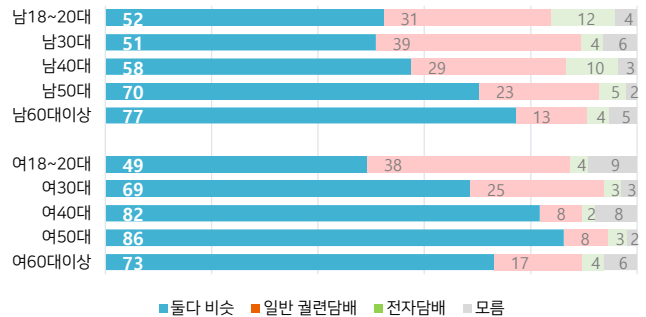
□ 일반 궤련담배와 전자담배, 비슷하게 건강에 나쁘다 생각

-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들(‘매우 나쁜영향’+‘나쁜영향 주는편’ 응답자)에게 별도로 질문한 결과, 이들은 일반 궤련담배와 전자담배가 비슷하게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일반 궤련 담배와 전자담배 중 어떤 담배가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반 궤련담배’ 22%, ‘전자담배’ 5%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비흡연자 △여성 △남자 5060세대 △여자 4050세대 △충청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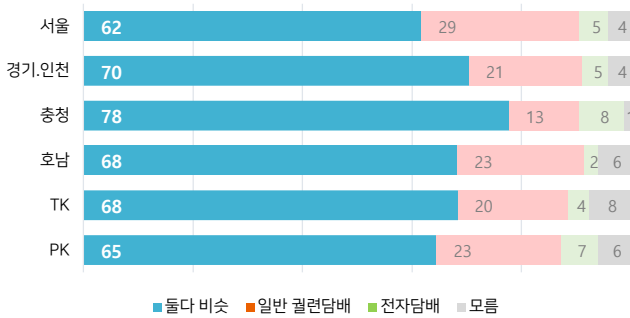
건강에 더 나쁜 담배 : 응답자전체, 흡연정도별, 성별
(자료:케이스탯, 2023.05.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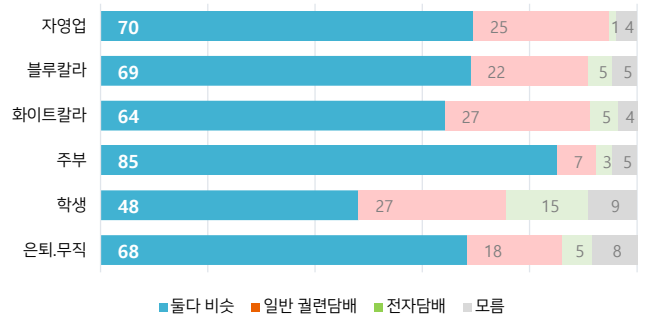
건강에 더 나쁜 담배 : 성/연령별 (2023.05.07조사, 단위:%)



건강에 더 나쁜 담배 : 지역별 (2023.05.07조사, 단위:%)



건강에 더 나쁜 담배 : 직업별 (2023.05.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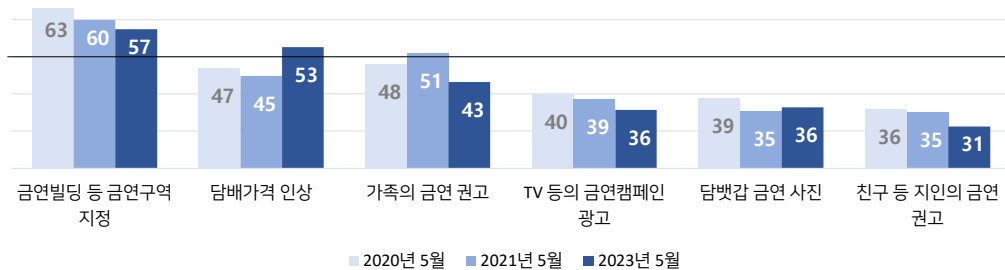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다수는 ‘일반 궤련담배’와 ‘전자담배’가 비슷하게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함
- ☑ 하지만 ‘일반 궤련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한 수준임
 - ： 이들은 ‘일반 궤련담배’가 건강에 더 나쁘다는 응답이 높은데, 그만큼 ‘전자담배’는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임
 - ： 이러한 생각이 강한 계층은 △상시 흡연자, 간헐적 흡연자 △남자 2030세대 △여자 20대 △학생 등임
 - ： 앞서 흡연방법 중 ‘전자담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과 겹치는데, 이렇듯 ‘전자담배’ 사용비중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건강에 덜 나쁘다는 생각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 흡연예방 및 금연유도에 있어 ‘일반 궤련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비슷하게 건강에 나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
 - ： 즉,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나쁘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지점임

□ 금연 정책 :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가격 인상’만 긍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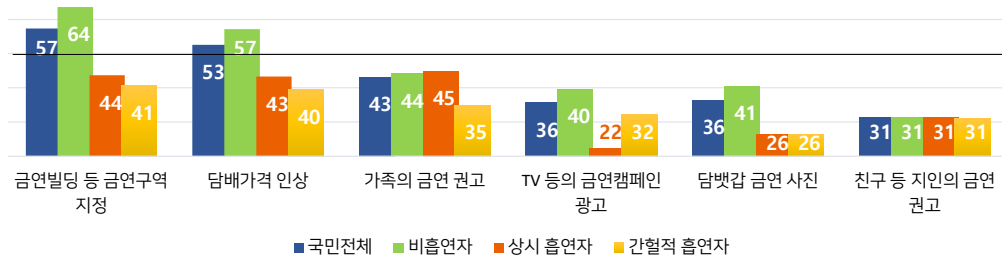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다양한 금연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 2023년 조사결과 ‘효과 있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한 정책은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가격 인상’ 2가지에 그침
- 지난 시기와 비교하면 ‘금연구역 지정’은 계속 50%를 상회한 데 비해, ‘담배가격 인상’이 새롭게 50%를 넘었고, ‘가족의 금연 권고’는 하락함
- 그 외 정책들은 지난 시기 모두 ‘효과 있다’는 의견이 50%를 넘지 못함

금연정책별 실효성 긍정평가율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 금연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흡연자만 놓고 보면, ‘효과 있다’는 의견이 더욱 낮아짐
 - 상시 흡연자의 긍정평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은 ‘금연구역 지정’, ‘담배가격 인상’, ‘가족의 금연 권고’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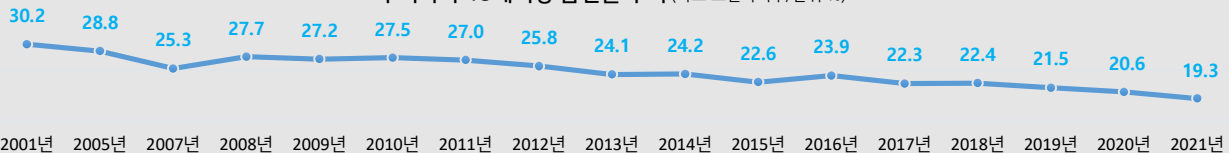
비흡연자, 흡연자 금연정책별 실효성 긍정평가율 비교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Kstat Point

- ☑ 우리나라 19세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꾸준히 하락, 정부의 금연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 19세이상 흡연율 추이 (자료:보건복지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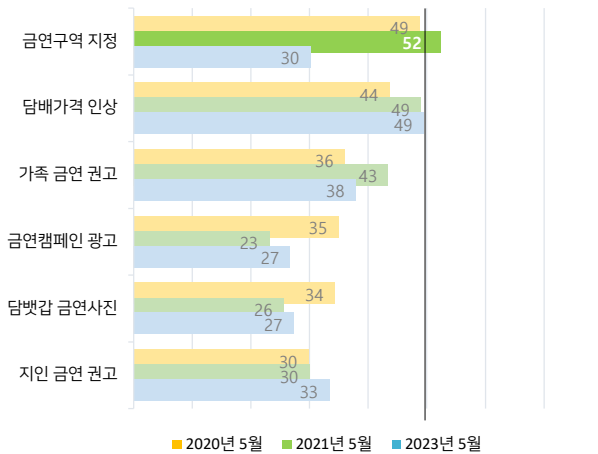


- ☑ 하지만 금연 정책 실효성 평가에 있어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가격 인상’ 외에는 긍정평가율이 낮고, 흡연자들에게는 더욱 낮아 금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 즉,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금연 정책에서 타겟별 세부화된 금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담 캠페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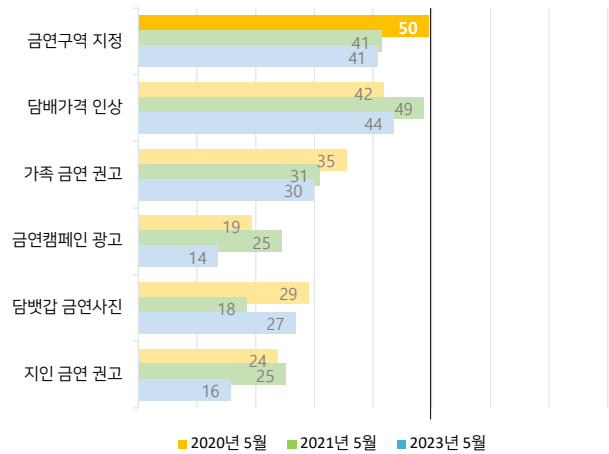
□ 전자담배 주도 2030세대, 금연 정책 실효성 부정적

- 금연 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성/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담배’ 이용을 주도하는 2030세대와 ‘일반 쉐련담배’를 고수하는 4060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남
- 먼저 ‘전자담배’ 주도세대인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금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고, 특히 20대는 더욱 부정적임
- 20대의 경우 지난 3개년 동안 긍정평가율이 50% 이상을 기록한 정책은 ‘금연구역 지정’ 1개에 그침 - 이마저도 2023년에는 50%에 못 미쳐, 모든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50%를 하회함
- 30대는 20대에 비해 긍정평가율이 높지만, 2023년 조사에서 50%를 상회한 정책은 30대 남성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가격 인상’에 그치고, 30대 여성은 ‘금연구역 지정’ 하나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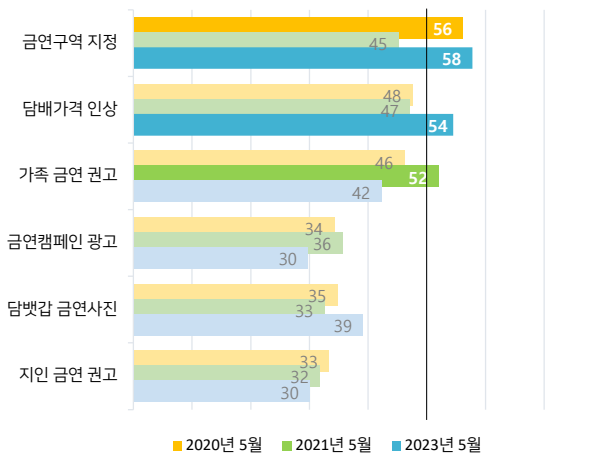
남자 18~2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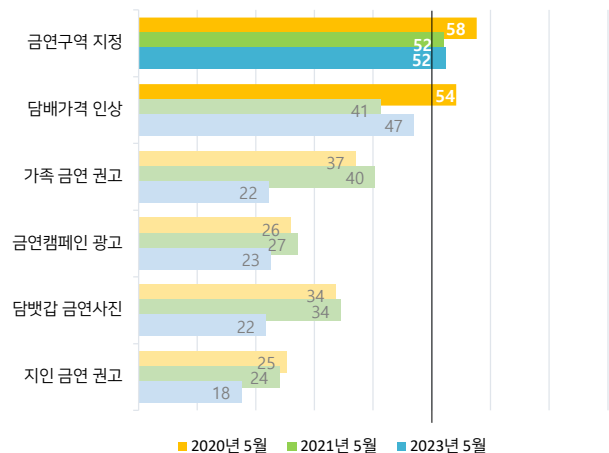
여자 18~2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단위:%)



남자 3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여자 3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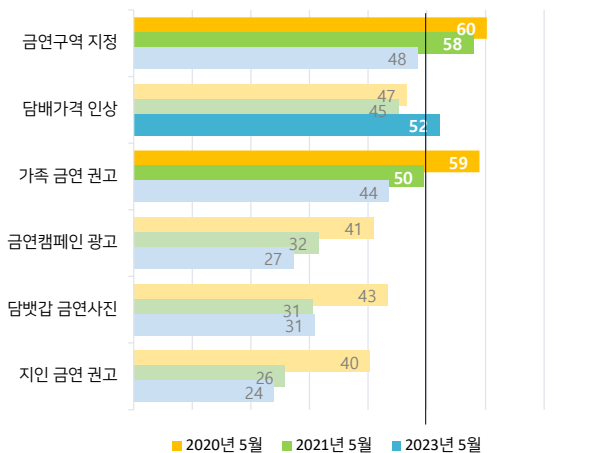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3년 조사결과 20대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고, 30대는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가격 인상’ 정도에 그침
- ☑ 2030세대에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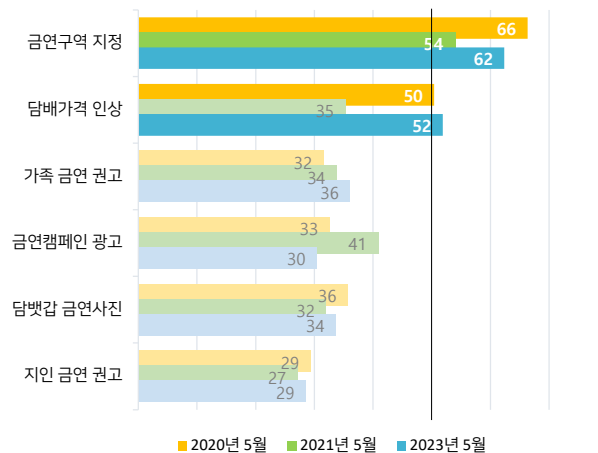
□ 일반 쉐련담배 고수 4050세대, 50대만 금연 정책 긍정적

- 4050세대는 쉐련형 담배를 고수하는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금연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름
- 50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비해, 40대는 3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적임
- 특히 흡연비중이 가장 높은 남자 40대의 긍정평가율은 2023년 조사에서 ‘담배가격 인상’ 하나에 그침
 - 2020년과 2021년에 50%를 넘었던 ‘금연구역 지정’과 ‘가족 금연 권고’가 2023년에는 50%를 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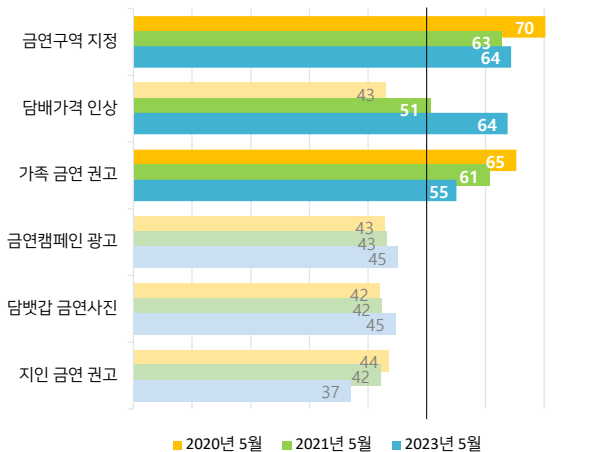
남자 4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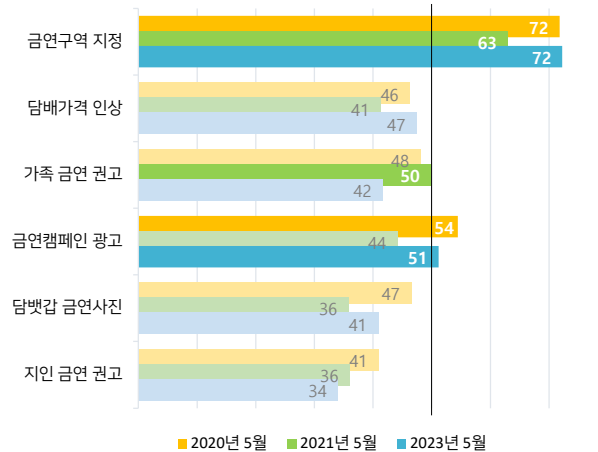
여자 4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남자 5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여자 5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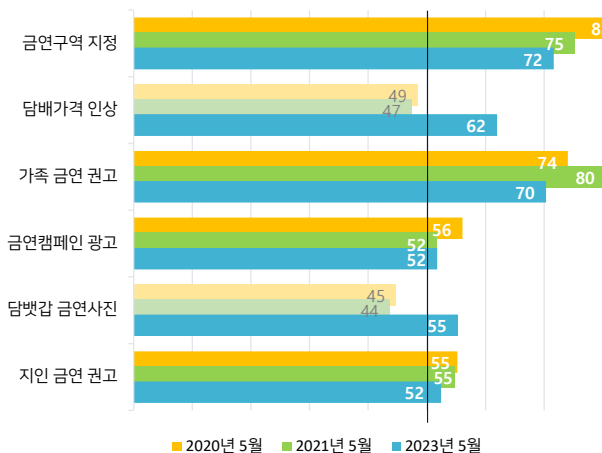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주도의 각종 금연 정책에 대해 2030세대에 이어 40대도 부정적인 데 비해 50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임
 - : 즉,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지금의 금연 정책은 ‘금연구역 지정’ 외에는 2040세대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연 정책의 새로운 접근(국민전체에서 타겟별 세부화)이 필요한 이유임
- ☑ 한편, 지난 시기에는 긍정평가율이 50%를 넘지 못하던 ‘담배가격 인상’이 올해에는 50%를 상회한 점이 주목됨
 - : 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개인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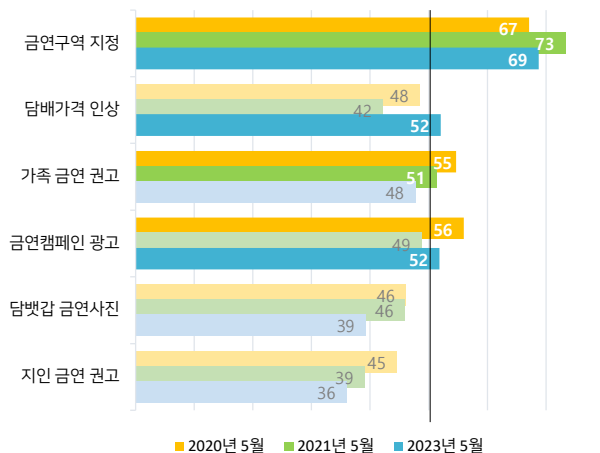
□ 60대이상, 금연 정책에 매우 긍정적

- 60대이상은 남녀 모두 정부 금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남자 60대이상은 모든 정책에 대해, 거의 모든 시기에 50% 이상의 긍정평가를 기록함
 - 특히 2023년 현재는 모든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긍정평가를 기록함
- 여자 60대이상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낮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긍정적임

남자 60대이상,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단위:%)



여자 60대이상,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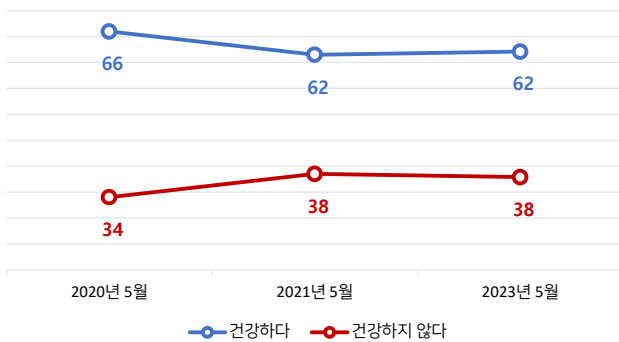
- ☑ 정부의 각종 금연 정책에 대해 2040세대는 부정적이고, 50대는 다소 긍정적이며, 60대이상은 매우 긍정적임
 - : 20대가 가장 부정적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특징을 보임
 - : 즉,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지금의 금연 정책은 주로 5060세대에게 효과가 있고, 2040세대에게는 큰 효과가 없음
 - :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금연 정책에서 타겟별 세부화된 금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 ☑ 또한 금연 정책과 관련된 2040세대의 여론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기에 정책수립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 예를 들어 ‘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효과 있다’는 의견이 해마다 달라, 다음 조사년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단정하기 어려움
 - : 이에, 금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2040세대의 특정시기 여론만 주목해서는 안되며, 전반적인 추이와 FGI 등 심층적인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2023년 '건강' 관련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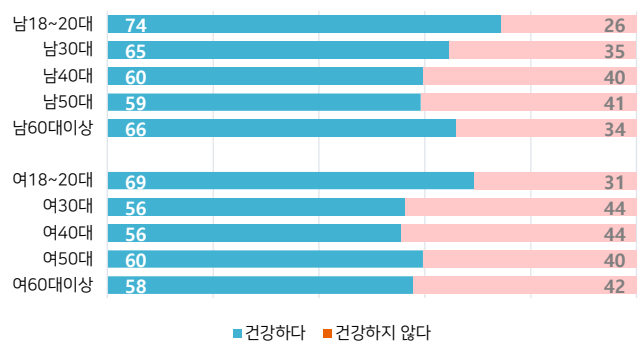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건강하다' 지속 우위

- 우리 국민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건강하다'는 의견이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60% 이상을 기록함
- 2023년 조사결과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건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대 △서울, TK △화이트칼라, 학생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등임
- 이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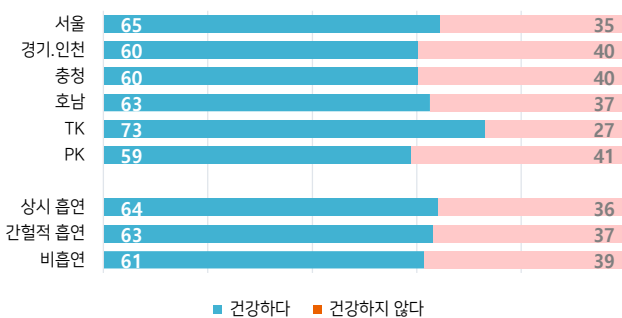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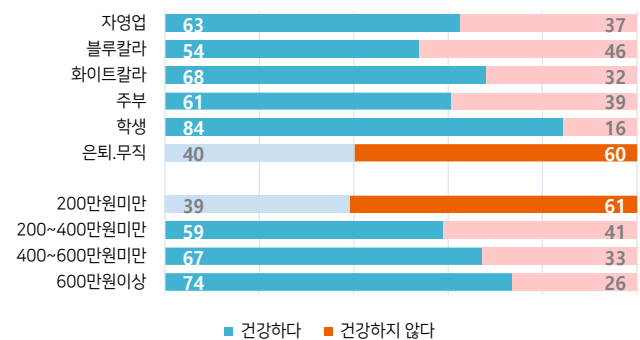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성/연령별 (2023.05.07조사,단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지역별,흡연정도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직업별,소득별 (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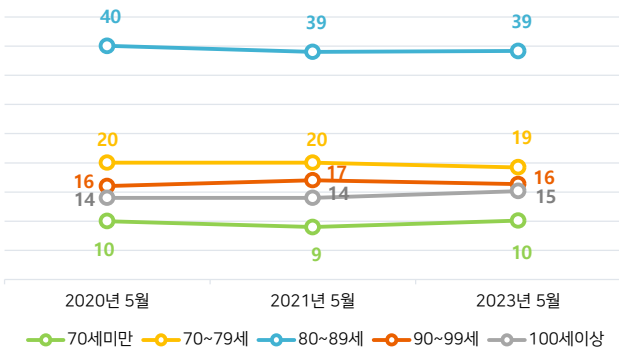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함
 - : 남자 20대의 '건강하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 여자 3040세대의 '건강하다'는 비중이 가장 낮음
- ☑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생각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데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건강하다'는 의견이 74%로 매우 높음
- ☑ 즉, 건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성/나이와 소득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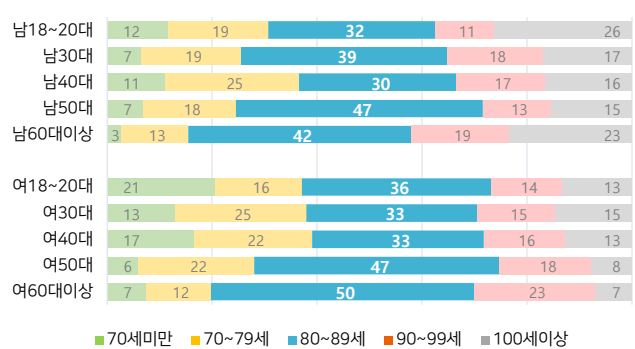
□ 기대 수명, 80대가 가장 높은 흐름 지속

-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80대가 가장 많음
 - 2020년 40%, 2021년 39%에 이어 올해에도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함
- 다음으로 70대(19%), 90대(16%), 100세이상(15%), 70세미만(10%)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8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비중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충청, PK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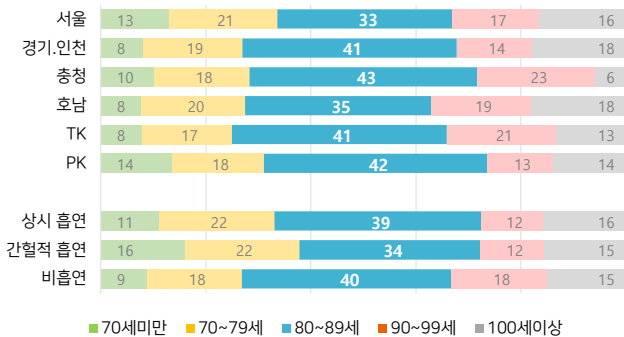
기대 수명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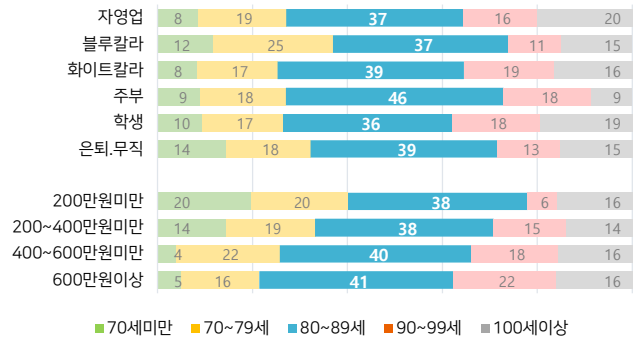
기대 수명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기대 수명 : 지역별,흡연정도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기대 수명 : 직업별,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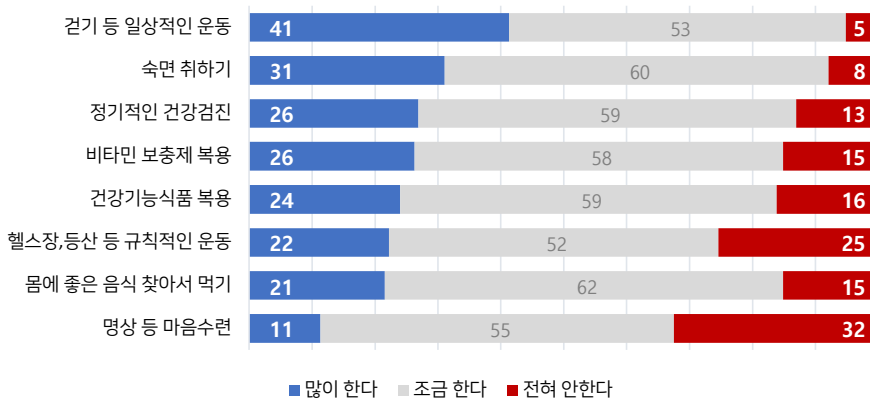
-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7.5%인 고령사회이고,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자료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 : 이러한 고령화 사회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희망하는 기대 수명은 80대로 맞춰지는 것으로 보임
- ☑ 문제는 고령화 사회 흐름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구조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정년'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정년퇴직 후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함
 - : 노후의 안정적 수입원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에 받게 되어, 현 상태로 라면 정년 퇴임 후 연금 수급까지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됨
- ☑ '정년 연장'(65세까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지만, 사회적 공론화는 미흡한 상황임
 - : '정년 연장' 이슈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갖고 있어, 국민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이슈임
 - : 즉, 세대별(젊은층과 고령층) 생각이 다르고, 기업과 노동자 간, 노동자 고용형태별(대기업·공무원·공공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로 생각과 입장이 다름
 - :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사회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임

□ 건강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

-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하기보다 '조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2021년과 2022년과 매우 비슷함
- 항목별로 자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 정도를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많이 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많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은 '걷기 등 일상적인 운동'(41%)이고, 다음으로 '숙면 취하기'(31%), '정기적인 건강검진'(26%), '비타민 보충제 복용'(26%)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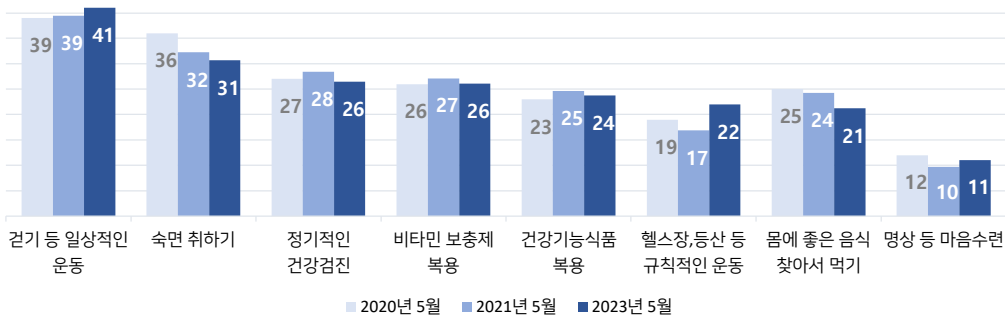
2023년 항목별 건강 위한 노력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 '많이 한다'는 응답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함

항목별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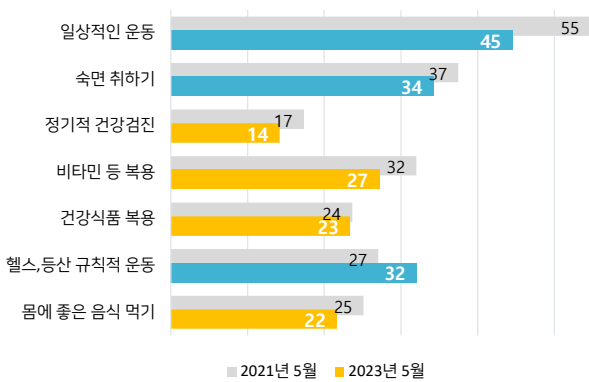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대신,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는 것으로 건강을 돌보는 경향이 있음
 -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자료 : OECD 보건통계)
 - : OECD 국가 평균 5.9회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일본의 12.4회보다도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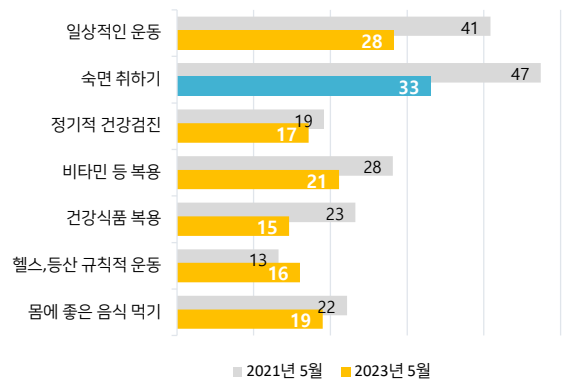
□ 남자 20대와 여자 30대, 상대적으로 노력 많이 해

- 성/연령별로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정도('많이 한다' 응답률)를 살펴보면 남자 20대와 여자 30대가 상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푸른색 막대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뜻함
- 특히 여자 30대의 건강을 위한 노력 정도가 가장 높고, 남자 20대의 노력도 비교적 높음
 - 여자 30대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4개이고, 남자 20대는 3개임
- 이에 비해 여자 40대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 걸쳐 낮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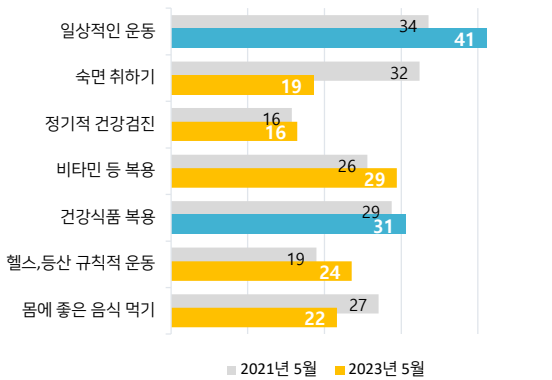
남자 18~2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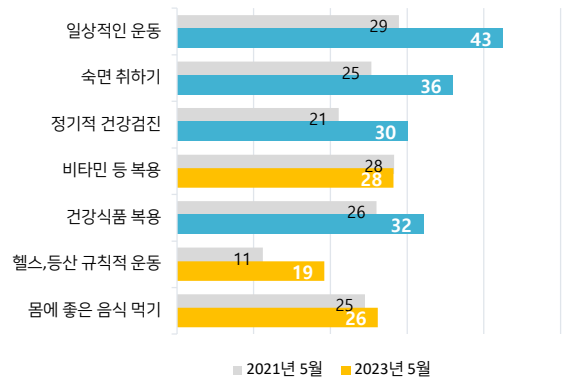
여자 18~2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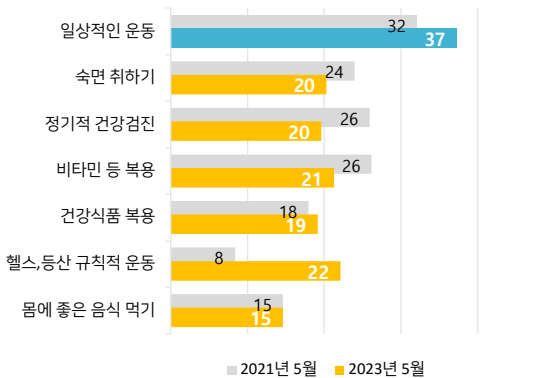
남자 3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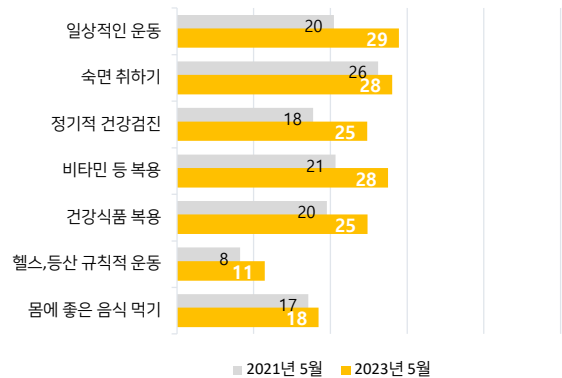
여자 3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남자 4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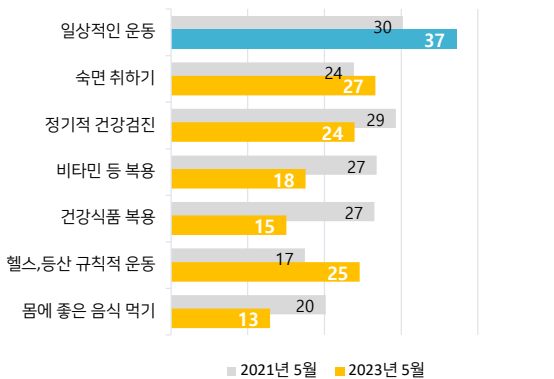
여자 4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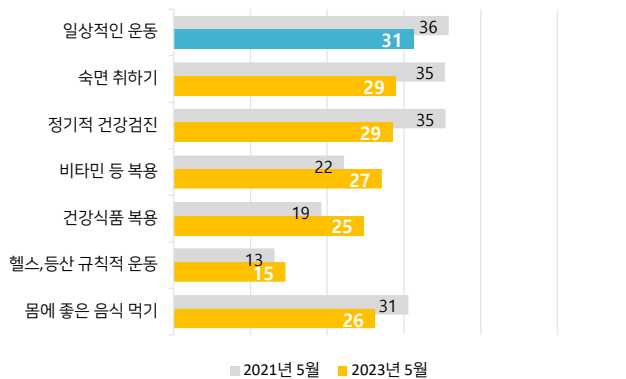
□ 남녀 60대, 가장 노력 많이 해

- 5060세대를 살펴보면, 남녀 60대이상 연령층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 60대이상의 경우 3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5개이고, 여자 60대이상은 6개로, 모든 성/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푸른색 막대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뜻함
- 이에 비해 남녀 50대의 경우 3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1개에 그치는 등 건강을 위한 노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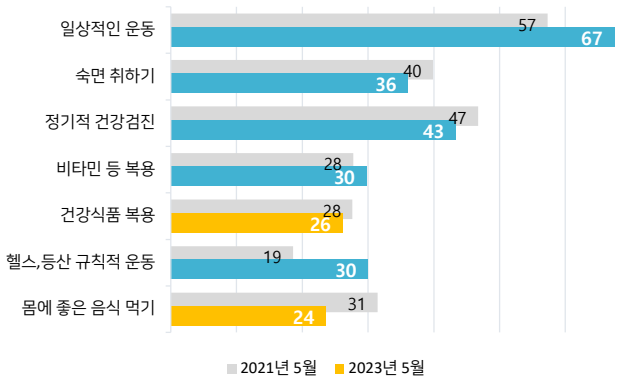
남자 5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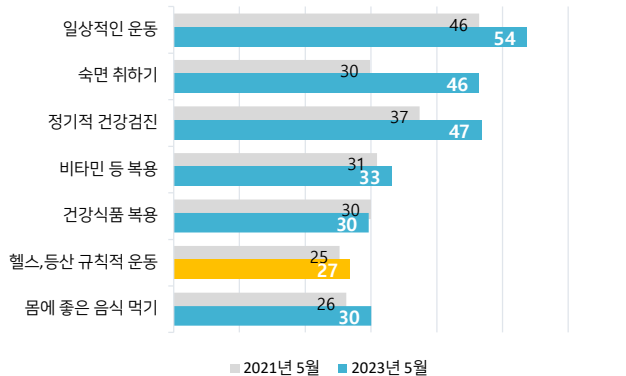
여자 50대,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남자 60대이상,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여자 60대이상,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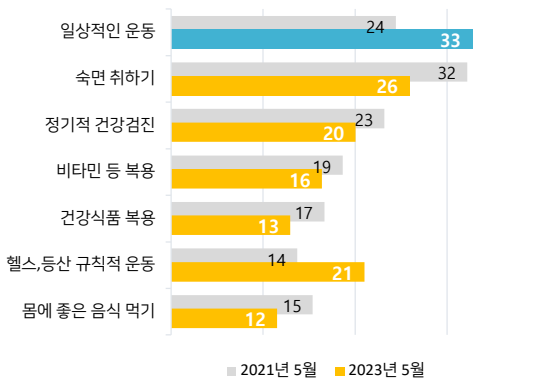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특히 낮은 성/연령대는 남녀 4050세대임
- ☑ 이들은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성/연령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임
- ☑ 이러한 세대특성이 건강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OECD 국가별 연간 노동시간(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임(1,915시간)
 - : OECD 평균 (1,716시간)에 비해 199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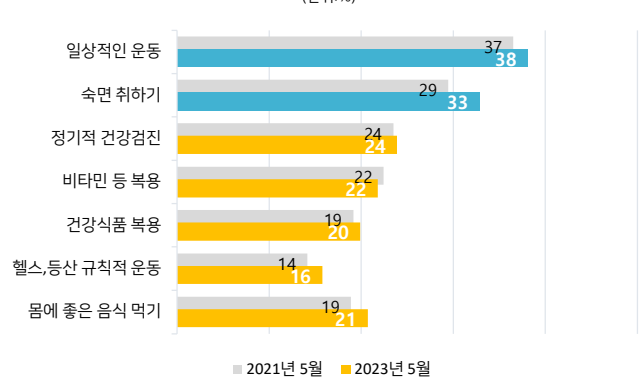
□ 소득 많을수록 노력 '많이 한다'

- 가구소득별로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경향이 뚜렷함
- 노력을 '많이 한다'는 비율이 30% 이상을 보인 항목을 보면(푸른색 막대), 소득이 높을수록 항목이 많아지고, 수치도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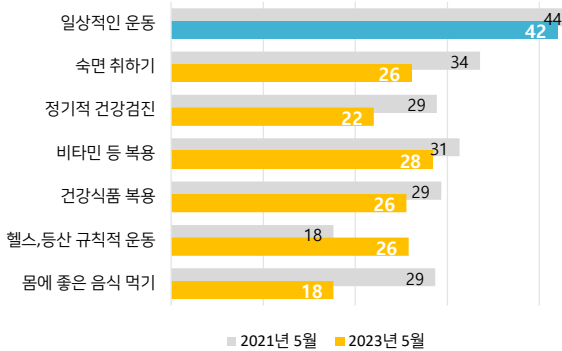
200만원 미만,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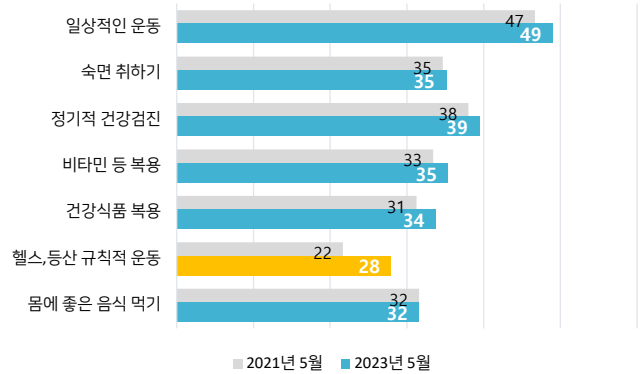
200~400만원미만, 건강위한 노력 '많이한다' 응답 추이 (단위:%)



400~600만원미만, 건강위한 노력 '많이한다' 응답 추이 (단위:%)



600만원 이상,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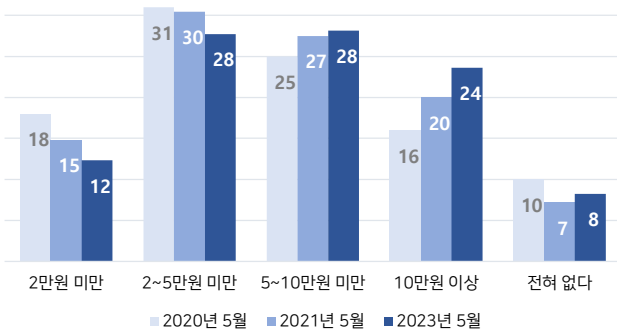
- ☑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소득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즉, 소득이 높을수록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 ☑ 문제는 건강수준에 따라 고용률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생애 기간 동안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임
: OECD에 분석결과,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대에서는 25%, 60세 이상에서는 50%이고, 이러한 고용률 차이는 소득 차이로 이어짐
- ☑ 또한 고소득층은 더욱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저소득층은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못 하는 악순환에 빠져 불평등이 심화·고착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임

건강과 '우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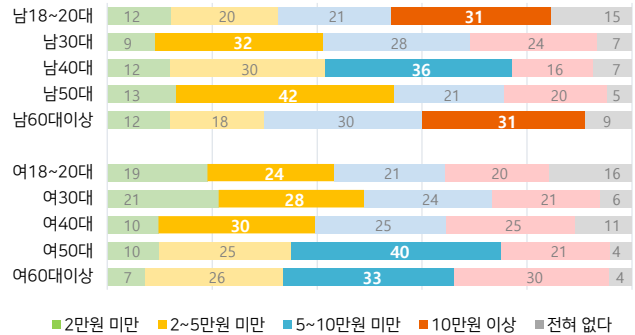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2~10만원 가장 많아

-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을 질문한 결과 '2~5만원 미만'과 '5~10만원 미만'이 공히 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만원 이상'(24%), '2만원 미만'(12%), '전혀 없다'(8%) 순으로 나타남
 -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5~10만원 미만'과 '10만원 이상'이 상승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2~5만원 미만'이 1위를 기록한 계층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남자 30대, 남자 50대 △여자 2040세대 △TK, PK △상시 흡연자 △자영업,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2~5만원 미만'과 '5~10만원 미만'이 같은 수치를 기록함
- '5~10만원 미만'이 1위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5060세대 △서울, 경기.인천, 호남 △비흡연자 △주부, 학생 △200~6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 한편, '1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계층은 △남자 20대, 남자 60대이상 △충청 △간헐적 흡연자 △블루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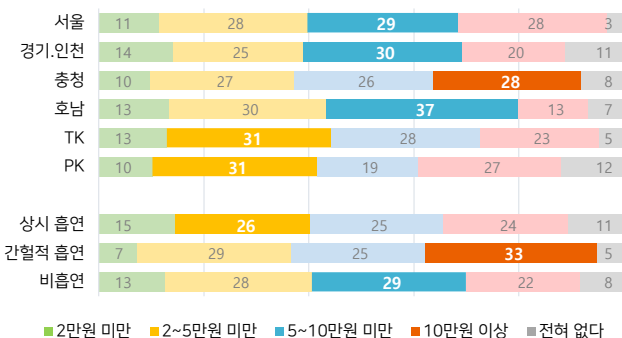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추이 : 국민전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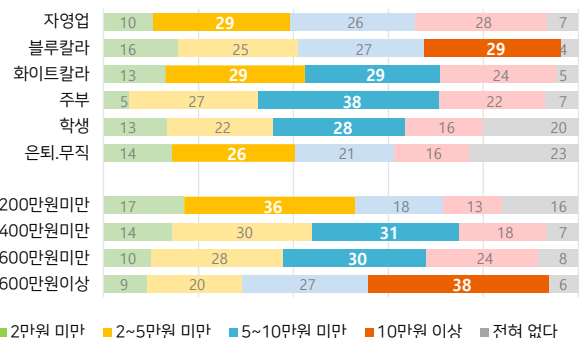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 성/연령별 (단위:%)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 지역별,흡연정도별 (단위:%)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 직업별,소득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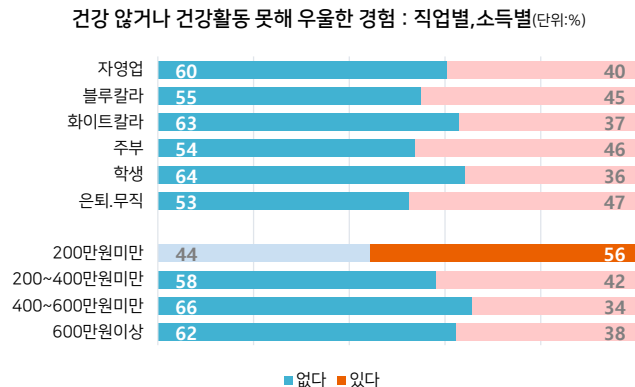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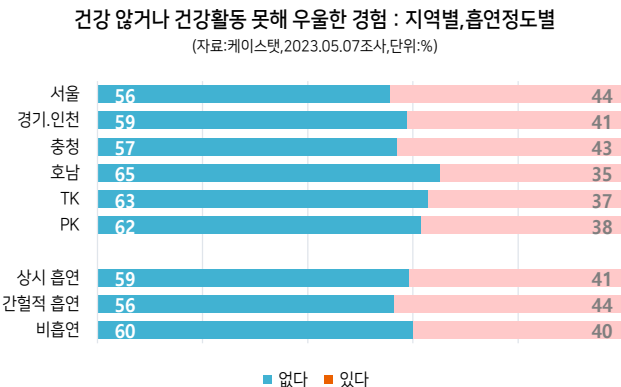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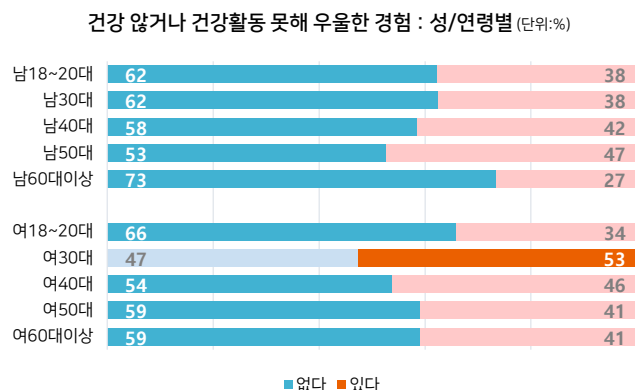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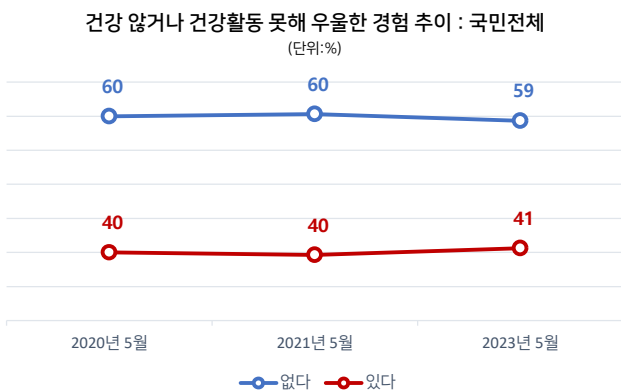


Kstat Point

- ☑ 건강을 위한 지출에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2만원 미만' 응답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10만원 이상' 응답이 높아지는 등 소득과 건강 지출 비용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 OECD는 건강과 소득 불평등 간의 연계를 끊고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한 기회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이러한 권고와 다른 상황임

□ 건강 관련, 우울한 경험 '있다' 41%

- “선생님께서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관련 활동을 하지 못해 우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41%이고, ‘없다’는 응답은 59%로 조사됨
 - 2020년, 2021년 조사와 비슷한 수치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대 △호남 △화이트칼라 △400~6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 이에 비해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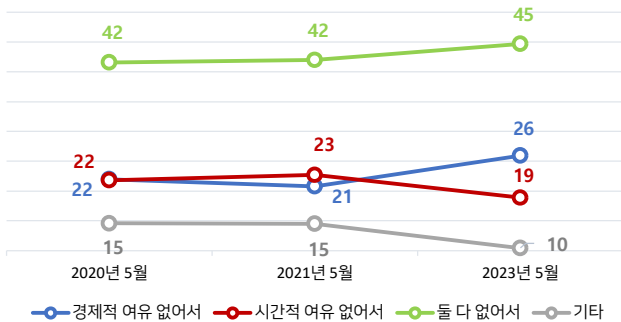
Kstat Point

- ☑ 건강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을 심화·고착시키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번 조사에서 보듯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관련 활동을 못해 우울을 경험한 국민은 40%에 달함
- ☑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최근 몇 달간 들었던 생각에서 '건강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65%로 높음 :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건강'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69호 『국민의 경제적 삶 현황 및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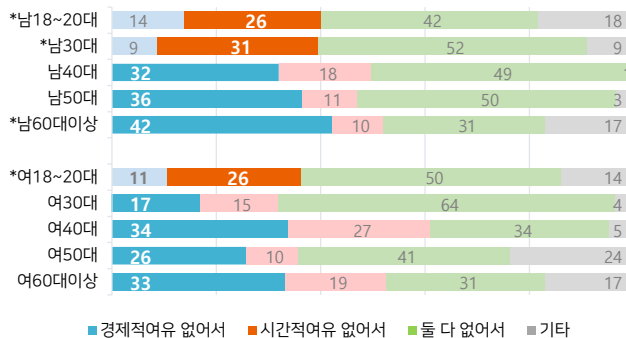
□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

- 앞서 응답에서 ‘우울’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45%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 없어서’ 26%, ‘시간적 여유 없어서’ 19%, ‘기타’ 10% 순으로 조사됨
 - 지난 2020년, 2021년과 비교해 ‘경제적 여유 없어서’의 비중이 높아짐
- 거의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가 1위를 기록함
-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를 제외하고 ‘경제적 여유 없어서’가 높은 비중을 기록한 계층은 △남자 4060세대 △여자 3060세대 △모든 지역 △비흡연자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표 되어 있는 계층은 표본수 40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역시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를 제외하고 ‘시간적 여유 없어서’가 높은 비중을 기록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대 △간헐적 흡연자 △화이트칼라, 학생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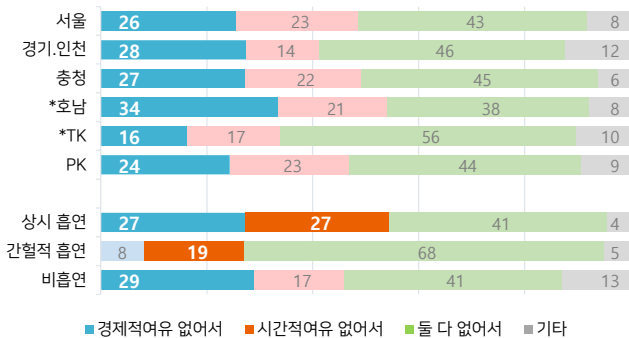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 추이(우울 경험자만) : 응답자전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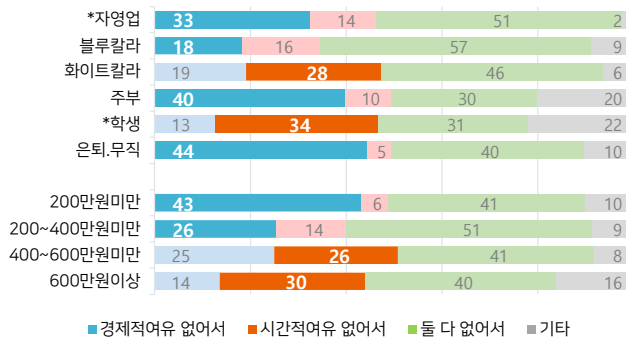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우울 경험자만) : 성/연령별 (단위:%)



건강활동 못하는 이유(우울 경험자):지역별,흡연정도별(단위:%)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우울 경험자만) : 직업별,소득별 (단위:%)



Kstat Point

- ☑ 건강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 모두가 필요하고 ‘우울’을 경험한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두 가지 모두가 부족해서 건강관련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 ☑ ‘둘 다’를 제외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여유 부족이 높은 특징을 보임
 - : 이는 경기침체 상황에 따라 악화된 가계상황 때문으로 분석됨
- ☑ 또한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으면 경제적 여유 부족을, 소득이 높으면 시간적 여유 부족을 꼽은 특징을 드러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5호는 『경기침체와 개인 삶 방향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5월 25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5월 사회지표는 5월 18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